

# 세월호 직립작업 시작...진실도 바로세운다

### 모듈 트랜스포터 364개 투입...4월 10일까지 수직 빔 설치 직립 디데이 5월 31일...미수습자 수색·기관구역 조사 탄력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처된 지 315일째 만에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이 시작됐다.

2개월간 중단됐던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이 재개되면서 선체 직립과 그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탐색을 하지 못했던 구역의 미수습자 수색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 역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선체직립 작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세월호선체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세월호 선체수습본부는 목포신항에 거처된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선체 하부에 모듈트랜스포터(MT) 364축을 밀어 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 하부에 설치된 MT는 세월호의 무게를 나눠 받으면서 선체를 옮긴다. 모두 176억원이 투입될 선체직립 작업의 시작인 이동작업에는 지난해 4월 11일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처할 때 사용한 특수 운송장비인 MT가 다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세월호 거처 작업에는 MT 800축이 사용됐다.

21일 시작되는 작업은 세월호 선체를 작업하기 좋은 위치로 옮기는 것으로, 세월호 밑바닥(선저)이 바다 쪽을 향하도록 90도 회전시켜 바다와 60m 거리에 수평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26일에는 철재 빔 등 관련 구조물 제작을 거쳐 다음달 1일 직립 선체 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4월 10일까지 세월호에 수직 빔을 설치하고, 5월 26일 목포신항과 4km 거리에 있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1만t급 해상크레인을 가져와 작업 준비를 끝낼 예정이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해상크레인으로 세월호 철재 빔에 힘을 가해 실제 회전을 시키는 '디데이'(D-Day)는 5월 31일이다. 이후 6월14일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세월호를 25분의 1로 모형으로 축소해 침수·침몰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선체직립은 수중수색을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아직 진입하지 못한 기관구역 조사와 5명의 미수습자 수습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생 재근씨와 조카 혁규군을 기다리는 권오복(62)씨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현장을 떠났어도 지금까지 동생과 조카를 잊은 적이 없다"면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안에는 미수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선체직립 작업이 무엇보다 의미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이 진행될 경우 지난해 11월 18일 목포신항에서 열린 5명의 미수습자 영결식을 끝으로 떠났던 목포신항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21일 오전 7시40분께 목포신항에서 유가족들을 상대로 선체 이동 작업 관련 설명회를 연 뒤 오전 8시부터 세월호 선체를 부두 쪽으로 옮길 예정이다.



19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의 이동을 위한 모듈트랜스포터 364축을 세월호 밑에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한 전 해수부 장·차관 구속기소

### 내부 동향 매일 보고 지도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두 사람은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를 의결할 수 없도록 방해 방안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인지를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 "차 주인도 30% 책임"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정차한 뒤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이를 알아챈 A씨 측은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L)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다.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알아챈 A씨 측은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L)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다.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건조한 날씨 들불 잇따라 '주의'

### 광주·전남 울들어 54건

광주·전남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들불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들불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울들어 화재는 광주 5건, 전남 49건 등 총 54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농두령과 쓰레기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들불로 번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21분께에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밭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마을 주민이 쓰레기기를 소각하다가 피운 불이 인근 밭으로 번졌다. 마을 야산까지 불이 번질 우려가 있어 헬기 1대, 인원 50여 명이 나서 불을 껐다. 이 불로 밭 0.01ha가 탔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 25분께에도 강진군 신전면 영관리에서 80대 여성 노

인이 쓰레기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옮겨 붙었다. 이 불로 저수지 독과 비닐하우스 등 0.1ha가 불에 타 소방차 550여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19분께에도 강진군 근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에서는 60대 여성 노인이 농두령을 소각하다 불이 번져 묘지와 대나무밭 등 330㎡가 불에 탔다.

이날 낮 12시 38분께에는 장흥읍 금산리의 다랑에서 80대 노인이 농두령을 소각하다 들불이 났고, 이날 오후 1시 39분께도 영암군 학산면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불이 번져 150㎡가량이 불에 탔다.

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용전리 밭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마을 주민이 쓰레기기를 소각하다가 피운 불이 인근 밭으로 번졌다. 마을 야산까지 불이 번질 우려가 있어 헬기 1대, 인원 50여 명이 나서 불을 껐다. 이 불로 밭 0.01ha가 탔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 25분께에도 강진군 신전면 영관리에서 80대 여성 노

## 피고인 없는 곳서 소변 밀봉

### 대법 "마약 투약 증거 안돼"

마약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피고인 없는 곳에서 밀봉했다면, 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8일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소8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차씨의 투약 증거로 제출된) 소변과 머리카락은 피고인 눈앞에서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다"고 지적했다.

##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 '서해순씨 비방 금지'는 인용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고발뉴스 이상호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소21부(문광성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와 김씨,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 이주여성에 호의 배운 이유는...방심 틈타 돈 '슬쩍'

이주여성에게 커피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나 50대 남성이 7개월간의 추적 끝에 잡혔다.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최모(55)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11시께 조선대학교 앞 벤치에서 이날 버스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 A(38)씨에게 "자신의 아내 전화번호를 저장해 주겠다"며 휴대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뒤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쳤다는 것.

○...나주에 거주하던 최씨는 이날 나주 영산포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 A씨에게 "아내도 베트남 사람"이라며 커피를 사주는 등 친근감을 나타냈는데,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는 한국인이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환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평가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평가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평가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평가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평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